

제 25 장 사도 행전 Tape #8114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과 함께 일정한 시간들을 단순히 보낼 수 있다는 특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중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주님, 오늘밤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하고 괴로운 자들이 당신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그 현존의 진정한 인식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으로 지시해 주시기를, 당신의 발 앞에 앉아 있도록, 주님, 오늘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님, 항상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과 우리의 신뢰, 헌신, 믿음을 표현함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리고 주님, 우리가 오늘 밤 라울 리스를 기억하고 싶은데, 주님께 구하기는, 그의 꼬마 손자 조카의 죽음에 대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조카와 가족 모두를 위해, 오늘 밤 당신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과 같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들은, 주님,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피상적이고 공허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대로 평안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한 여행을 계속합니다. 24 장에서 노트한 대로, 마지막 절에서,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힌 후 2년이 되었고, 벨릭스가 그 지역을 5년 동안 통치한 후에, 그러나, 이 기간 중 2년 동안 그가 바울을 만났고, 포르시우스 베스도는 그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벨릭스의 통치가 너무 남용적이고, 부패했기 때문에, 마침내 로마의 의회에 의해 그는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로와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그의 동생인 팔라스의 중재가 없었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졌을 것인데, 다행히도 그 집행은 면제되었으나, 결국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조금 밖에 없으나, 세상의 역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죽기 전까지 겨우 2년 정도 밖에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즉 그의 통치는 매우 짧았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것은 이렇게 조금 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로부터 세상의 역사 대부분은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로마의 역사가인 탁티투스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에 관련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1 절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그 지역의 로마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예절과 같은 것이었죠. 약간의 외교적 상황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신임장을 보이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2 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을 고소하며,”(지금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기에, 지금은 새로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제사장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이죠. 바울에 대한 그들의 미움은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2년 후인 지금까지도 깊었는데, 그 이유는 그를 죽이려고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에게 간청하여,”** 3 절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 줄 것을 구하니 이것은**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들이 잠복했다가,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겠지만, 40 명이나 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것 때문에, 막강한 로마 호위대의 보호 아래 그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깨뜨렸거나, 또는 죽였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지만, 의심할 것 없이, 맹세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대항하여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는데,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이 한 때 그들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비록 당신이 이방인이래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은 종종, 예수님이 이방인의 메시야라고도 말하고, 만약 여러분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에 가보면, 그들은 매우 성심껏, 매우 친절하고, 매우 친근하게 대해주며,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여러분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에 간다면, 모든 박해란 박해는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일원 중 누구 하나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참을 수가 없어, 그들이 반역자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2 년 뒤까지 화가 나있고, 분노로 끓아있으며, 그를 죽이려고 여전히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스도는,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의 분노를 인지했고, 아마도 그들의 의도를 수상히 여기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4 절 “그러나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어야 하며 자기도 속히 거기를 떠나고자 한다 하고,” 5 절 “또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고소하라

하니라.” 만약 바울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다시 바울을 대항하여 고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온다면 이 사건을 경청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즉 그는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6 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열흘 남짓 머무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이튿 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 명령하니,” 그래서, 그가 가이사랴로 돌아왔고, 재판을 소집했으며, 바울을 안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기억하지만, 그가 이 지역에 온 지 3 주가 안된 상태, 아마 2 주간이 조금 지난 정도인데, 그가 이 첫 번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대항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소집했습니다. **7 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그러나, 한탄스러운 짓입니다.) **“중대한 고소거리로 바울을 고소하되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인데,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가 있었다고 하나, 모든 것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누가 밝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거칠게만 하는 것이지요. **8 절 “이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게나 내가 도무지 범죄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 내가 진짜 유대인들을 감정 사납게 하지 않았고, 그것은 합법적으로 한 것인데,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시다. 내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고, 또한 카이사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습시다. 나는 순결합니다. 즉 이것들은 의심할 것 없이, 유대인들을 더럽혔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선동했다고 바울을 대항하여 만든 그들의 고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잘라서 그 고소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9 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자, 여기에 로마의 정의를 깨뜨리려는 거짓이 있습니다. 공평하다고 가정한다면, 정의로우려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 또한 편애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며, 더욱이 역시 비위를 맞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그 지역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막 재임한 베스도는 유대인에게 어떤 아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울을 대항하여 고소했음으로, 베스도가 약속하기를, 바울은 갈 것이고, 유대인의 공회회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10 절 “이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 앞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니이다 각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나이다.” 당신은 로마 재판관으로서, 그들이 만든 고소가 고소로서 증명되지 못한 것인 줄 당신이 인식하고 있으니, 내가 단언적으로 그것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순결한지는 당신이 매우 잘 알고 있으니, 나는 예루살렘의 공회회의 앞에 서 있지 않을 것이고, 단지 카이사르의 재판석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 절 “만일 내가 범죄자거나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나를 죽음에 내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일들이 사실 무근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 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실행하고, 마지막 결정으로 카이사르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만약 그가 살인의 범법 사실이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불공정한 결정을 가졌다면, 항상 카이사르에게 그것에 대해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의 처리를 위한 그 권리는 카이사르가 보유하고, 로마 시민은 [그에게 호소하는] 이 특권을 가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애매하게 되어가고 있었으나, 바울은 결백했습니다. 그가 베스도에게, 당신도 그들의 고소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고 항의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 당신이 아다시피,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에 연루된 어떤 일을 했다면,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나를 그들에게 단지 돌려보내도록 한다면 내가 가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그들의 손에 두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고의로 위협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고의로 고통 속에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고통과 재앙을 만나니, 그것은 현명치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순교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인되지 않은 고소로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되기를 전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카이사르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12 절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대답하되,” (의심할 것 없이, 그가 그들에게 설명했을 것인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한 순간, 더 이상 베스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즉 바울이 그것을 그의 손에서 꺼냈다는 것이고, 의심할 것 없이, 그는 고발들을 성사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리고 내려온 유대인의 공회회에 로마법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나는 도움이 없고, 손들이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카이사르에게 청원할 권리를 가졌을 뿐입니다.

공회와 협의하면서, 베스도는 말하기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네가 같지니라 하니라.**” 자, 바울은 일찍이 그의 여행 계획을 아무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가야를 가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그 다음 예루살렘을 간다고 했던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때 그는, 또한 로마도 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쓸 때에도(롬 1:10-15), 그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만남으로, 상호간에 축복해 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가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 정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튿날 내내 소동을 일으키고,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한 후, 그 밤에 안토니오 요새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의 곁에 서신 채, 바울아! 힘을 내라,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또한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 나의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은 로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바울이 했던 방법을 거기서 받을 것이라고는 계획하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마도 자신의 교통수단을 지불할 방법을 생각했을지는 모르나, 로마 정부의 호의로 그가 로마에 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로마로 데려가게 되었고, 여기 지금 그가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가 욕망을 표현한 후 2년 반쯤이 지나서라는데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뒤로 바로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종종 우리에게 일반적인 전체의 계획을 어떻게 계시하시는 지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행하시기 전에 번번이 그 시간의 간격이 있기 마련인데, 가끔 그 시간의 간격에서, 우리는 거의 참지 못하고, 우리가 자신의 손으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 드릴 수 있을까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나요? 아시지만, 음, 여기서 한 방법을 구상해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예요, 주께서 내게 반드시 로마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그분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간의 인내를 주목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가 그것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40 세였을 때, 나아가, 한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고,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 이집트인을 죽여 모래에 매장시켰습니다. 다음 날 그가 나갔는데, 두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싸움을 말리려고 말하기를, 이보게 친구들, 너희는 형제들이야, 너희들이 서로 싸우면 되나? 안 되는 사이들이지! 라고 하자, 그들은 돌아서서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들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반응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까다마는, 그는 성큼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가 되도록 선택했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의 이집트인을 매장하는 것조차도 성공할 수 없었으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자, 40년 후에, 주님은 전[whole] 군대를 수장하셨습니다.

내가 육체 안에서 무엇을 행할 때와 내가 성령님의 인도로 무엇을 행할 때에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틀어,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여러 차례 우리가 발견하지만, 음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의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실제의 예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발견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 큰 권위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도 아주 많은 경우에 주님을 앞서서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나의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리라! 고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망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이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면, 그 분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당신이 보며, 그것이 항상 부드럽게 갑니다. 즉 항상 그리 힘들이지 않고 수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

시면, 항상 완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함께 나의 육체로 사역하는 것과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는 것과 대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가야 하리라. **13절 “며칠 뒤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또한 베라니게라고 알려졌습니다.)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카이사르에게 와서,”** 그는 새 로마의 고관입니다. 헤롯 아그립바 1 세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쯤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법을 공부했고, 성경구절도 공부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대제사장을 지명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고, 그는 유대의 법에 친숙했으며,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것에도 익숙했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의 헤롯이었는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했으나, 당신도 알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현자들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 잠깐 있어,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이 죽자, 그 땅의 1/3 에 해당하는 갈릴리 지역만을 통치했는데, 그의 수도는 티베리아였고, 헤로디아라고 불리는 그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침례자 요한은 이 관계를 반대했고, 이것이 헤로디아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순간, 헤롯은 그의 며느리인 살로메의 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욕이 타올랐습니다. 위세가 있는 몸동작으로, 혹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왕국의 절반까지 원한다면 요청하라고 그가 말했으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요청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대답하기를, 큰 쟁반이나 접시에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목을 벤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들은 한번, 헤롯이 당신을 뒤따르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교활한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함에 어쨌든 자신은 무죄하다고 하였듯이, 예수님께서 결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정의에 입각한 그의 인식으로는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유대인들이 그에게 압력을 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인, 헤롯, 헤롯 안타파스가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헤롯 안타파스에게 보냈던 것이고, 헤롯이 그것에 대해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여러 등등의 질문을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분은 헤롯 안타파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었으며, 그는 경멸의 눈초리로 그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 세는 헤롯 아그립바의 아버지였고, 그는 2 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목을 벤 자였으니, 그들은 피로 더럽혀진 가족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와 친숙했고, 유대인들의 종교와도 친숙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고, 헤롯 안타파스는 침례자 요한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헤롯 아그립바 1 세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목을 쳤습니다.

지금 이는 헤롯 아그립바 2 세인데, 그가 버니게와 나타났습니다. 버니게가 실제로는 그의 누이였는데, 그녀는 또한 헤롯 아그립바 1 세의 딸이기도 하고, 드루실라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드루실라는 우리가 지난 주 벨릭스와 결혼한 여자로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서로 복잡하게 엉킨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은, 버니게가 그녀의 나이 단지 13 세에 말쿠스라는 사람과 덜컥 결혼을 해버렸는데, 이는 그 여자가 아주 드물게 지극히 아름다운 여자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말쿠스가 2 년 후에 죽어서, 그 때 그녀가, 또한 헤롯가의 한 사람인, 삼촌과 결혼했습니다. 그 또한 2 년 후에 죽었어요. 남자들이 단지 2 년 정도 밖에 그녀를 다루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자기 오빠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근친상간의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매우 가까이 있었으나, 결코 근친상간을 했다고 증명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통 소문이 나게 되었고, 특히, 로마 지역에서는 그것이 더욱 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 버니게가 그녀의 오빠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로 온 로마 지역에서 웅성거림이 있었다고 타시투스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들의 관계에 대한 한담을 벗어 던지려는 듯이 그녀는 다시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이 잘못 되어가자, 그녀는 헤롯 아그립바 2 세인 오빠에게 옮겨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원 후 66 년에 로마를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를 진압하려고 디도 장군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베스페세안이었고, 그 다음은 그의 아들 디도가 로마에 대한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로마를 대항한 반역에서 유대인을 설복시키는데 있어 그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정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41 세쯤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아름다웠기에,] 그녀는 디도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또한 그녀는 디도의 정부였기 때문에, 그의 본래 아내가 화를 내자, 그녀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크게 부족했지만, 그녀는 과연 여인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즉 아그립바 2 세와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고 왔습니다. 그가 그 지역의 새로운 총독이 되었으니까요. 비록 그들이 그에게 인사하려고 왔지만, 14 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소송**

사건을 왕에게 설명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결박해 두었는데,” 15 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소하며 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기에,”** 16 절 **“내가 대답하되 고소당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자기를 고소한 범죄에 대해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음에 내어 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것은, 베스도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바울의 죽음을 요구하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바울을 죽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들에게 로마의 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선 사람이 고소한 자와 마주 대할 권리가 있기에, 얼굴을 맞대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고, 고소한 자를 만날 기회를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그들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죽음에 내주는 것이 로마의 법으로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쪽 이야기의 진말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17 절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에 왔을 때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 날 재판석에 앉아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18 절 “고소한 자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여 내가 짐작한 것 같은 그런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정말로 그를 대항할 진정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심각한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죽음에 해당하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일 뿐 실제의 혐의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체의 문제를 요약해 버렸고, 그들은 그에 대항하여 특정한 질문을 했습니다. **19 절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미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단어는, 기억하겠지만, 바울이 아텐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이 매우 종교적이라고 깨닫는데!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단어 ‘미신적’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종교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바울은 그들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을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주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그들의 것에 대해 말하고, 단지 그들의 종교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라는 이가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문제로 심문할 뿐이었나이다.”** 그것이 문제의 요점인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이 바울의 확언입니다. 바울이 그 확언을 했는데, 이는 일으켜 지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으켜 지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으켜 지신 주님께서 그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때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고 믿었으며, 부활의 이야기가 단지 터무니없는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단을 박멸하려고 마음을 정하게 되었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 분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섬기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에게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셨고, 바울과 이야기하셨으며,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 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저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분은 살아 계시다, 그 분은 살아 계시다. 그 분께서 살아 계신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까? 그 분은 나의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 분이 살아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음, 내가 오늘 아침 그 분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말입니다. 내가 그 분과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에 대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는 곳에 복음도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십자가는 능력도, 의미도 없습니다. 전[whole] 그리스도인의 믿음 구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 기초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셨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이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벧전 1-5). 이것이 살아 있는 소망입니다.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의 영은 이 몸을 떠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살아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심장인데, 그들이 복음의 심장을 대항하여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는 죽었다고 말하나,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20 절 “내가 이 같은 문제에 의문을 가졌으므로,”(아그립바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물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하였으나,”** **21 절 “바울이 청원하여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지켜 두라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는 상황을 아그립바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내려왔고, 그들이 바울을 대항하여 고소한 것에 대한 본질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바울에게 질문했는데, 네가 이 문제들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고 했을 때, 바울은

카이사르에게 청원했습니다.

22 절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거늘,”(그래서, 베스도가 말하는데,)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아그립바는, 유대인의 성경구절에 대해 친숙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 친숙했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이야기에 친숙했습니다. 즉 그 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 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이 다음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친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말하기를, 내가 이 사건을 들으리라고 했고, 베스도는, 예, 내일 들을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23 절 “이튿 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지금 당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하는데, 그들은 자주색 외투를 입고, 그들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군대가 옆에 서 있는 가운데, 베스도는 거기서 총독의 붉은 외투를 걸치고 있으니, 청문회에서 로마 정부의 장관과 의식을 다 보게 됩니다.)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높은 사람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나오니,”** **24 절 “베스도가 이르되,”**(이것은 공식적인 선언 같은 것인데,) **“아그립바 왕과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것은 큰 탄원이었기에, 이 사람이 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25 절 “내가 알아 보건대 그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은 저지른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26 절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어떤 특별한 사실을 쓸 것이 없으므로 심문을 하면 무엇인가 쓸 것이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립바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와 세웠나니,”** 자, 당신이 보는 대로 베스도는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재판은 빠른 심의로 진행해야만 하는데, 죄수를 붙들어 두어야 할 특별한 고소 없이 그를 붙들어 두는 것은 정당한 일이 못되었습니다. 오늘날조차, 많은 우리 법들이 이 로마의 법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빠른 심의를 해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대항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공식적인 고소가 없이 일정한 기간을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정치적인 전유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그가 당당하게 발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것을 알아 차렸고,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할 때, 그것은 베스도를 좋지 않은 양상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바울이 고소되었던 것에 대해 결백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에 처할만한 어떤 것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카이사르에게 그를 보낸다는 것은 카이사르와 함께 베스도를 아주 좋지 않은 양상에 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재판은 그러한 지역 안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카이사르가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 자신을 위협한 자리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의 목적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를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네로에게 보낼 때, 그의 탓으로 돌릴 확실한 고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의 형태를 짜는데 그가 우리를 도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진행된다면, 바울을 대항하는 고소들만큼은 쓸 것들을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7절 “이는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이죠. 어떤 죄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그립바, 당신이 이 사건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다음 주 공부에서 찾겠지만, 아그립바는 그리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단지, 당신이 문제가 있군요, 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26 장으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에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신 당신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언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 단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당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니, 이것을 당신이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알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자신을 바칩니다. 모든 일에서 당신을 섬기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주님,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당신의 왕국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 있다면, 부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구하오니, 당신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니 우리에게 하셨던 것같이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들이 기쁨과 흥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축복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